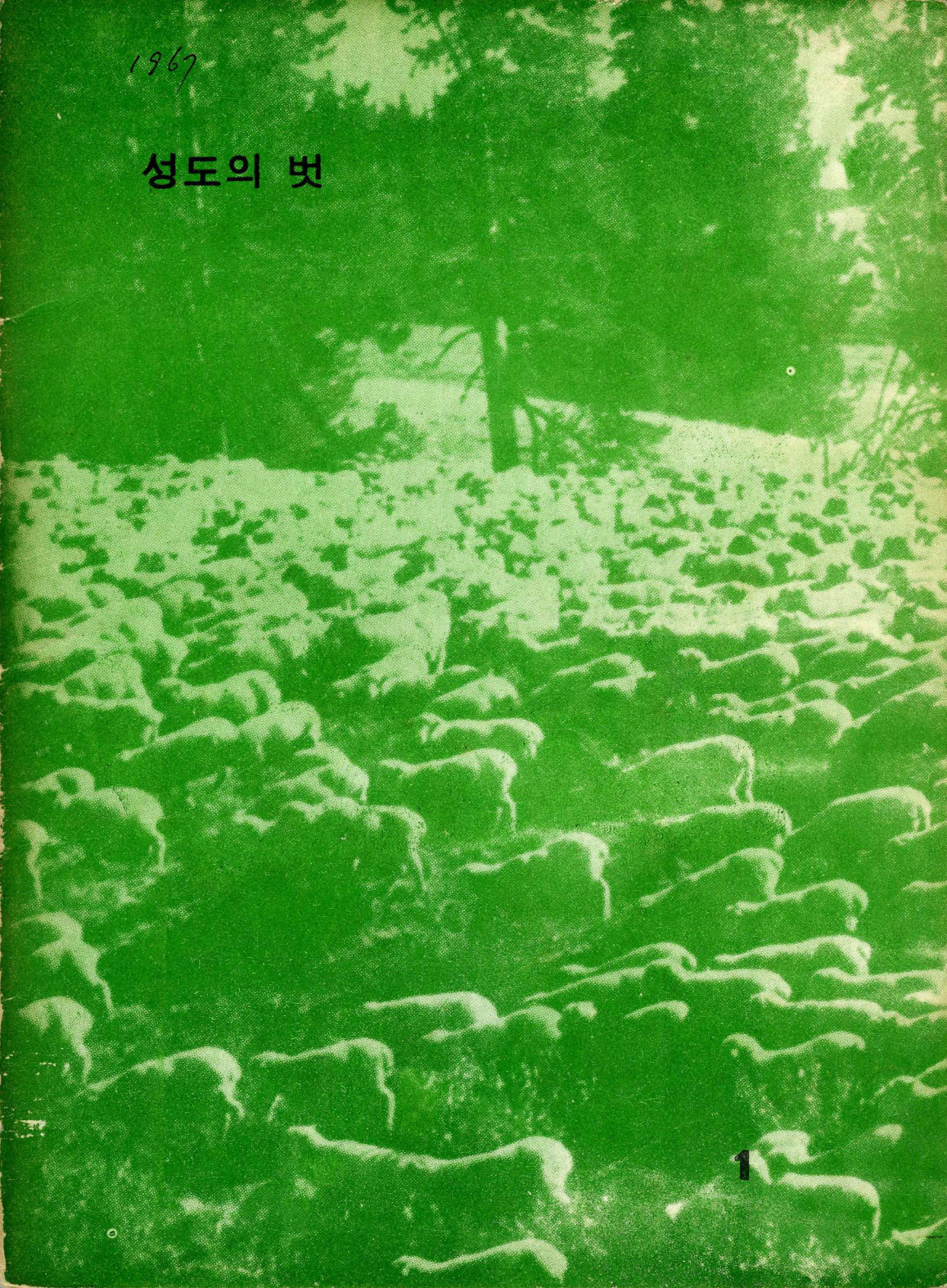


1967

# 성도의 벗





# 성도의 벗

1967년 1월호

## 목차

67년에 나는 .....	1
권두언 .....	2
지방부장단 멧세이지 .....	6
시 .....	9
바다를 건너온 소식 .....	10
선교사 초대 .....	14
토막 상식 .....	17
성도의 벗 확보 .....	19
칸타타를 끝내고(오견식) .....	27
이것이 물론이다 .....	31
귀환 선교사의 아내로 한국에 와서 .....	33
동양사회와 기독교 .....	35
병오년 결혼의 휘나레 .....	36
계시관 .....	37
새해 새 아침에 (차종환) .....	39
침례자 명단 .....	43
편집 후기 .....	44

\* \* \* \*

### 표지 설명:

정미년, 양의해, 양떼들은 목자를 따라 산으로 들로 행렬을 벌이며 순종을 통한 평화를 시위하고 있다.

# 67 年에 나는

시간

을 선용할 수 있을까?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행한 뒤, 과연 나는 만족  
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일까?  
삼백 육십 오일, 그것이 오  
는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이 해의 끝날에 무엇을 의미할  
까?  
여름이 지나고 추수가  
끝난 뒤 나의 영혼  
은 어찌 될까?

"천하에 법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때가 있고 심  
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  
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

## 卷 頭 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 이 진리는  
물론경을 외어야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의문을 주지만 물론경은 훌륭한 지  
식을 준다고 강조하는 스펜서 제이. 파머 박사는 물론교  
토 더욱 잘 알려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선  
교부장이다.

65년도 8월에 선교부장으로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물론교 선교에 종사하게 될 파머박사, 따라서 누구를 만  
나거나 선교에 열심이다.

"물론교는 미국에서 발상했기 때문에 미국에 교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교는 미국만의 것이 아니고,  
우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나라에 널리 퍼져가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희망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한  
국인에게는 특히 그 계시 말씀이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  
한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라 한미간의 우호관계가 돈  
독하므로 당장은 언어 관계로 약간의 고충은 있으나 쉽  
게 극복할 수 있다고 밝은 전망을 내리면서 이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에 교회가 있고 그 밖에서 조직을 서  
둘고 있다고 한다. 멀지 않아 물론경을 한국어로 번역  
하여 한국에 물론의 선종을 일으킬 자리에 넘쳐있다는 파



머 박사는 특히 서울대학교 강사로 있는 한국지방부장 차  
 종환 박사의 높은 덕망이 순조로운 지방조직에 절대적인  
 힘이 되고 있다고 격찬을 마지 않았다. 정부 기관이나,  
 사회단체 기타 사회적으로 훌륭한 교회 지도자를 갖고 있  
 기 때문에 한국에 물론 교의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데 조  
 금도 걱정을 않는다면서 한국의 신도들은 대부분이 경제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한결같이 그것을 이겨내  
 려는 의욕이 충만 되어 있으므로 마음이 튼튼하다고 밝  
 혀 웃음을 띠었다.

精神的 女性

碧眼의

한글을 지금 눈부시게 변화(발전)하는 기점에 이르  
 고 있습니다. 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한국인의 얼굴에  
 는 무엇을 발견하려는 노력의 열렬히 눈에 보입니다." **아침나루**  
 그러나 한국적이 아닌 한국의 변화는 반드시 반가운  
 현상이 **韓國道** 한국인 스스로가 한국 정신을 재발견하  
 는데 노력해야 **通** 것이라 고 말하는 박사의 한국을 가보는  
 눈이 여간 날카롭지 않다.

어느 민족이고 간에 그 민족의 난환을 극복하고 급  
 속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쇠태에 맞는 정신적  
 지주로서의 종교를 가지고 나서는 것이 역사상 현상이었  
 는데 한국에는 지금 그 정신적 지주가 없는 것 같다고도  
 했다. 미국의 개척기에는 기독교가 미국인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데 큰 치력이 되  
 었는데 한국에는 한국인이 진정으로 불들어야 할만한 종  
 교가 없다는 이야기다. 일찌기 선조들이 불들었다고 하

는 유교나 불교도 이제는 전 민족을 단합시키는 힘을 잃은지 오래이고 토착화 하지 못한 기독교를 내세울 수도 없으며 한국 민족만의 고유 종교였다는 동학이나 다른 것으로 새삼 한국민족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자세는 서방적 번영을 지향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바쳐줄 만한 정신적인 바탕이 없으므로 정상적인 발전이 되지 못하고 여러가지 정치적 사회적 병폐가 생긴다고 개탄했다.

결국 새로운 한국인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즉 몰몬교만이 발전하는 한국인을 한데 묶어 더욱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한국인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으로서는 너무나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파머 박사는 배일론이라는 한국 이념을 가진 몰몬교의 선교 부장 으로서 보다, 한국을 알고 한국을 이해하는 소수의 외국인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한국통의 한 사람이다.

파머 박사는 13년 전인 53년에 미군 군목 중위로서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거제도 와 부산 육군병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모든 미국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도 역시 한국을 보기 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의 하나로서 한국이라면 기껏 카메라나 쿠웨이트 처럼 작은 나라, 전쟁과 질병이 들끓는 나라 쪽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막상 한국에 와 보고 한국

이 5천년의 찬란한 문화와 단일언어를 가진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동양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는 큰 감명과 비상한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귀국하여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연구에 골몰 석사학위를 받고 이어 계속 동양학을 연구하여 동양학 박사 학위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근대 외교사 연구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온 박사는 10여년에 걸친 연구의 결정인 방대한 저서 "한미 외교사"(캘리포니아 대학 간) 3권을 비롯한 한미일 외교관계 저서가 많이 있으며 현재는 또 종교와 전통과 사회적인 여러문제를 중심한 저서 "한국과 기독교"를 출판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이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물론교의 한국 선교에 남다른 자신을 가지고있는 파머박사는 당년 40세, 유타주 브리감영 대학 사학과를 거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동양학을 전공한 동양학의 권위자이다.

현재 모교인 브리감영 대학 부교수를 겸하고있는 파머박사에게는 역시 브리감영 대학 사범대학을 나와 교편을 잡고 있는 부인 서리 에이취. 파머 여사와 슬하에 2남 1녀의 귀여운 자녀들이 있다.

(편집자 주: 이번 권두언은 월간지 "세튼계", 1월호에 실린 기사로 대신했음.)



# 지방부장단 멧세지

새해를 맞아 성도 여러분께 풍만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대과 없이 1966년을 보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것은 여러분의 협조와 기도의 결과라고 여겨 더욱 감사드립니다.

졸지에 중임의 부름을 받은 저희 지방부장단은 한국적 여건과 바토 이 시기의 요구를 인지하고 미력한 힘이나마 한데 모아 일하기로 다짐 했습니다. 우리의 든 힘이 되는 것으로는 첫째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그리하여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총만하신 은혜와 인도를 허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 전 성도가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먼저 정직하게 살도록 합시다. 정직이라 함은 먼저 하나님께로요, 그 다음은 이웃과 자기에게 정직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직 하나로 우리는 1967년을 운택하게 살 수 있고 서로 확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정직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중 앞에 서서 허세도 부리지 않을 것이며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남을 비판하거나 함정으로 몰아넣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 한국의 역사에서 우리는 중삼 모략이 빛은 참상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

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성도들간에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혹 형제 자매가 잘못을 범하거든 사랑으로 다스려 주고 정면에서 책하되 뒷공통을 만들어서는 안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착하고 신하게 보는 눈을 준비할 필요를 느낍니다.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에 달려다는 말이 있습니다. 착하게 보고 신하게 보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967년에 보다 보람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많은 기도를 해야겠고 여러분이 지지하신 저희를 힘껏 밀어 주셔야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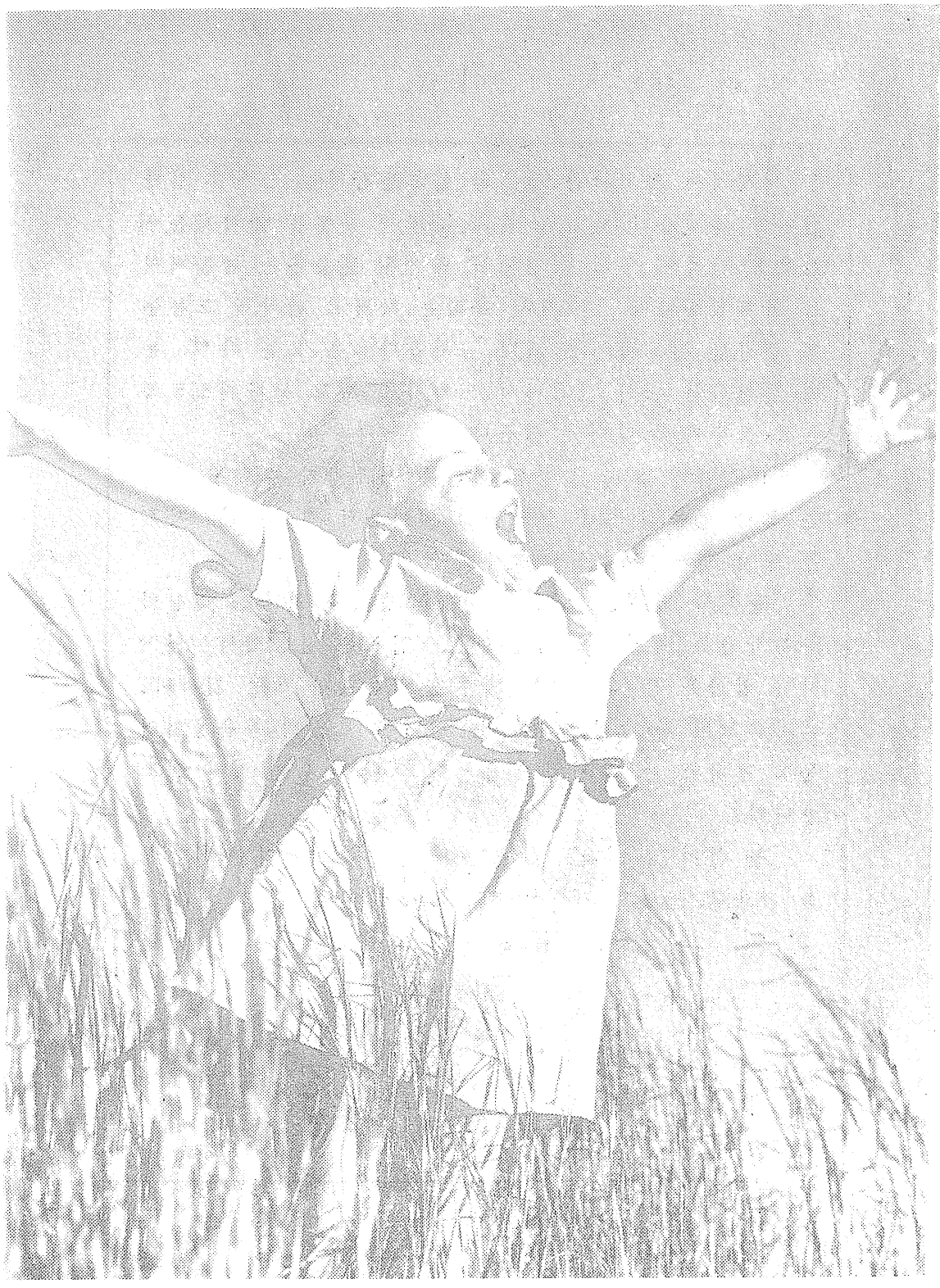
끝으로 저희는 올해에는 더욱 경전과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자고 제의하고 싶습니다. 간증은 신앙에서 얻어지며 신앙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서 오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전하는 경전과 구원의 복음을 덮어 둔채 우리가 참 교회의 회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늘 여러분과 참된 삶을 누리기를 기원하며 내내 복음 가운데서 형제 자매이기를 빕니다.

정미 원단에

여러분의 형제

차 종 환  
김영달  
홍재원  
최영달





# 詩

해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아얌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넘어 어둠을 살라먹고,

산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 이글 애뼌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들에 달밤이 나는 싫어 ...,

해야, 고운해야. 니가오면 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훤훤훤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토래도 좋아라.

사슴을 뺏아, 사슴을 뺏아,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뺏아,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최범을 뺏아, 최범을 뺏아, 최범을 만나면

최범과 놀고 ...;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애떡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박두진 저, 자작시해설"시와사람"에서)

# 바다전너온 소식들

늘 그리운 兄弟姊妹 여러분!

一年을 두고 聖誕의 精神이  
내내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사랑과 所望으로.

葛 桂 一 家 族

보내 주신 분:

한국선교부 초대 선교부장 가족

그분의 주소:

Gail E. Carr  
11065 Benwell Dr.  
Lynwood California  
U. S. A.

Keep up  
good work  
the Lord  
always

the  
and 한국 의 성도 여러분  
may  
안녕하십니까? 성탄  
bles과 신년에는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  
복 있으시기를 바랍  
니다.

발전하고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때때  
로 한국에 대한 소  
식 듣지마는 많이  
듣지 못합니다.  
시간 있을때에  
편지 한장 쓰시고  
보내 주십시오.

Dennis Black

나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크리스  
마스 방학이 시작  
했으니 좀 쉬고 있  
습니다. 몇일 동안 집  
에 와서 부모님들과 지  
내고 있습니다. 훌륭한  
시간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많이 생  
각하고 교회는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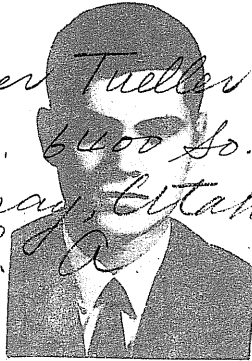




Dennis Black

C-1221 Melman Falls  
Provo, Utah  
U. S. A

Spencer Tueller  
195 E. 6400 So.  
Murray, Utah  
U. S.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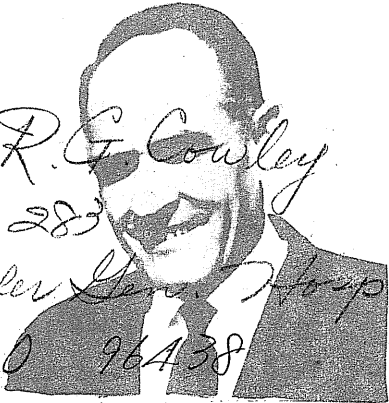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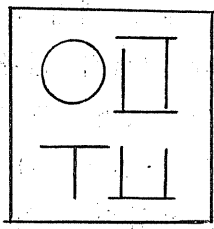
Col. R. G. Cowley

Box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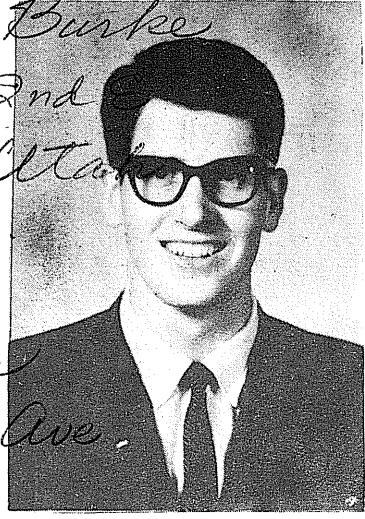
Tripler Gen. Hosp

A. P. O. 96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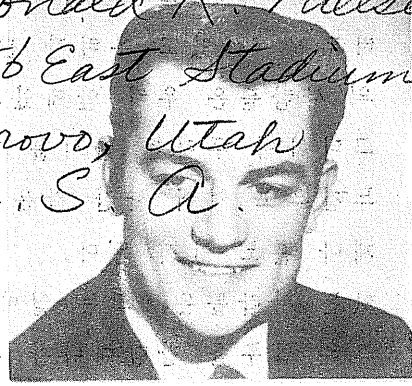




Dan E. Burke  
808 No. 2nd  
Logan, Utah  
U. S. A.



Ronald K. Nielsen  
356 East Stadium Ave.  
Provo, Utah  
U. S. A.



# AIR MAIL

\* \* \* \* \*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향한 향수를 우리의 편지로 달래  
줍시다.

이 두 분은 이번 성탄절 새해를 맞아 한국성도들께 자기  
들의 진정함 사람과 존경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성도의벗 편  
집실에 부탁해 왔습니다.

닐슨장로는 전공하던 기계공학을 포기하고 동양역사와  
한국을 자기 전공의 주제로 삼을 만큼 한국에서의 인상이 깊  
었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백 장로는 한국을 생각하면서 혼  
자우는 시간이 많다고 백 장토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 선교사 초대

## 뉴질랜드 편

페리튼 장로



한국에 온 뉴질랜드의 첫 번째 선교사라고 함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벅찬 과업이 된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 첫 번째 대표가 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사람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것이 된다. 그것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떠나온 고향사람들은 우리뒤에서 있고 우리가 간 곳의 사람들은 우리 앞에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감시를 받는 느낌으로 여러 사람 가운데 언제나 홀로 있게 된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는 얼마나 그의 임무를 감당해나갈 것인가? 그는 우리의 명예와 백성들을 대표하여 공의롭게 행할 것인가? 어떠한 도범과 인상을 남겨줄 것인가? 그는 뒤따를 사람들을 위하여 훌륭히서를 뿌리고 있는가?"하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문에 앞서서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는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의 일이 심중한 일임을 그는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 그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

그렇다. 나는 내 앞에 내가 올라야 할 산이 있음을 본다. 매우 높고 정복하기 어려운 산이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은 어떠한 산이라도 오를 수 있고 어떠한 장애물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 충분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식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할 의무가 있는가? 첫째는 우리 의동료나 자신에게도 아니며 우리의 하나님에게이다. 혼란하고 투쟁이 많은 오늘날의 세상에 있는 많은 갈등중의 하나는 사람이 첫째 의무와 마지막 의무를 반대의 순서로 놓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불행하게도 많은 한국 성도들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들의 의무를 하다 말다 한다. 상당히 높은 율의 비 활동 회원수들 알아보려고 기록을 살펴 보기만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찌하여 비 활동 회원이 이처럼 많은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위선과 개종이 폭풍이는 바다의 물결처럼 바람 부는대로 이리저리 출렁대기 때문이다. 그들의 집은 모래의 기초위에 지어져 폭풍우가 닥치면 흔들려 무너지게 된다. 엘라 힐러의 율독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적합한 시가 있다. "우리는 모으는 자들이 아니라 흩어는 자들이니"

출범

똑같이 불어오는 바람으로  
모든 것이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느 배는 서쪽으로 가나니  
그 바람은 출범을 조정하는 것이요  
갈 길을 결정하는 것이며  
미풍은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항해를 할 때  
그 운명의 길은  
바다의 배와 같나니  
그 삶은 목표와  
평온하지 않은 투쟁을 결정하는  
영혼의 출범이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원할 때 언제나 우리가 수도 꼭지를 트는 것 처럼 켜다 꺾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을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당신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꼭지를 틀어서 가득차게 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에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모두 의의 흉패와 갑옷을 입고 우리의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허리를 졸라매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합심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그를 다시 섬기게 하시며 이 위대한 땅에 세워진 목적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알랜 씨. 페리튼 장로



# 토막상식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가장 거룩한 주님의 집인 신전을 갖고 있어, 죽은자를 위한 대리 의식과 인봉 및 영원한 결혼, 등을 그 안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신전은 오늘날 어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후로 말일성도에 의해 이 지상에 다시 세워진 신전은 모두 15개소에 있었으나 그중 2개소가 상실되어 현재 13개소가 있다. 그것을 봉납 연대순으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신전 이름	소재지	봉납 일자
* 커트랜드 신전	미국 오하이오주	1836년 3월 27일
* 나브 신전	미국 일리노이주	1846년 5월 1일
성요지 신전	미국 유타주	1877년 4월 6일
토간 신전	미국 유타주	1884년 5월 17일
맨타이 신전	미국 유타주	1888년 5월 21일
샬트레이크 신전	미국 유타주	1893년 4월 6일
하와이 신전	미국 하와이주	1919년 11월 27일
캐나다 신전	캐나다 알버타	1923년 8월 26일
아리조나 신전	미국 아리조나주	1927년 10월 23일
아이다호폴스 신전	미국 아이다호주	1945년 9월 23일
스위스 신전	스위스 번	1955년 9월 11일
토스앤젤스 신전	미국 캘리포니아	1956년 3월 11일

뉴질랜드 신전	뉴질랜드, 니어하밀턴	1958년 4월 20일
영국 신전	영국, 서리 뉴차플	1958년 9월 7일
오스트랄랜드 신전	미국, 토스애펙셀스	1964년 11월 17일

신전의 소재와 역사를 기억하여, 신전 의식을 우리가 행하려할 때 의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은 현명한 일일 것이다. (주: \*표는 현재 사용치 않음)

\* \* \* \*

## 大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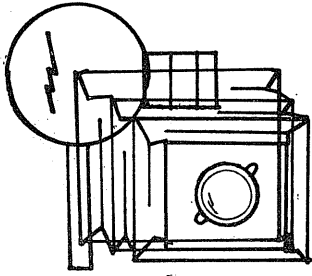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온 몰몬경 출판. 이번에는 일술 말로 그 출판일자를 발표하고 있다. 세상만사가 다 힘든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특히 몰몬경의 경우 그 값이 대단한가보다.

그것이 회복된 복음의 기록이라는 데서 오는 일종 중압감과 경건이 주는 무게 등... 하루빨리 내놓고 싶다는 번역자의 얘기 뒤에는 일종 시험대에 나서는 듯한 비장감이 맴돈다.

\* \* \* \*

謹賀新年

성도의 벗



# “성도의 벗 畫報”

한국선교부 67년의 중추



( E. S. 세손스 補佐 裴 一文 部長 李 虎 男 補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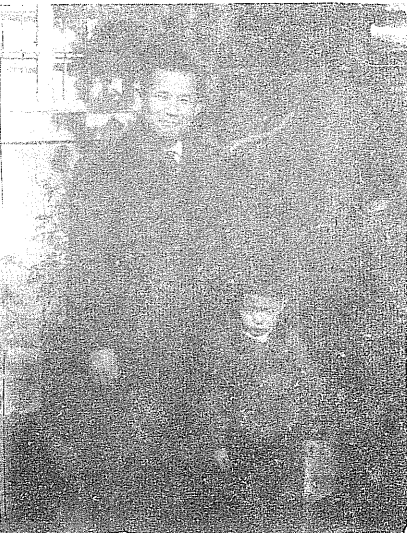
# 光州地域

## 새얼굴

이재수형제와 그 가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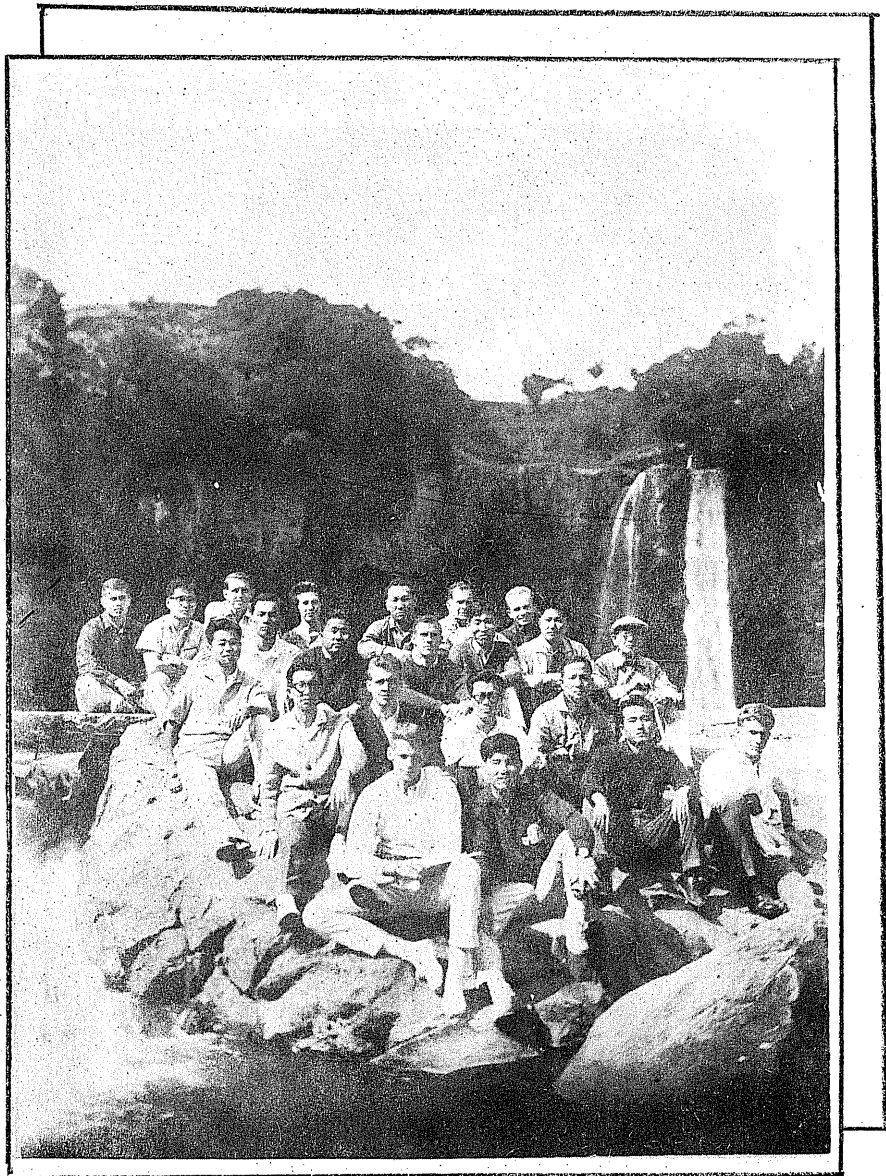


양병호형제의 부인과 두 아들 ↑



↑  
광주지역 선교사들

← 정현기형제와 그의 아들



65년도 제주 썬미나의 추억

# 66년 칸타타 盛況



열연중인 동방박사와 헤롯왕



아기예수 앞에서의 천사의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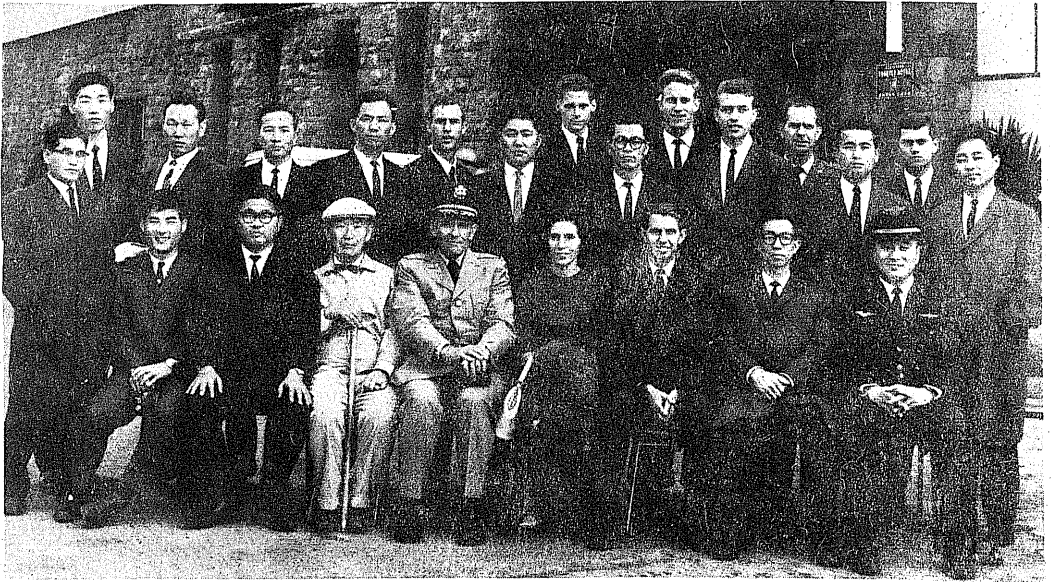
함께 노래하는 마리아와 요셉



칸타타 대난원의 휘나레



김동길 형제와  
장해자 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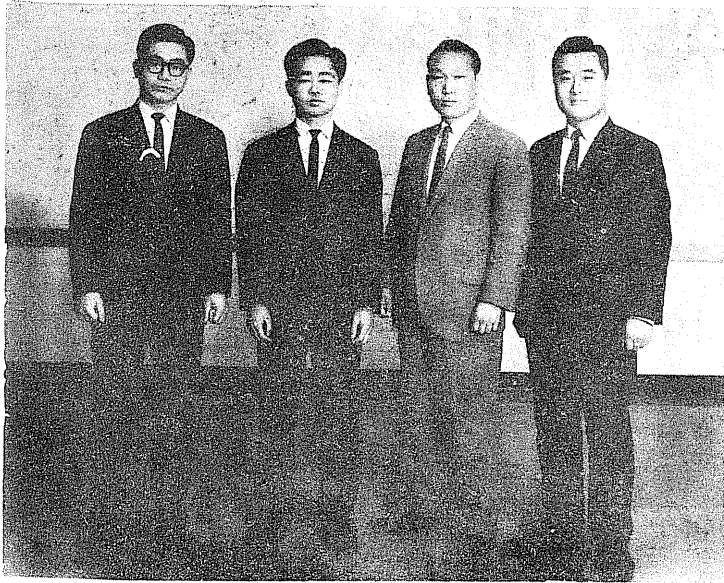
(65년도 지도자 제주 세미나 기념)

# 기수는 누구냐?



지도자와 함께 한 돌몬 소년단원들





지방부장단



칸타타에 동원된 인원 일동

우리 몰몬교회의 성도들이 꼭 한가지 자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상에서 가장 바르고 참된 교회가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일찌기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단상에서 설교하던 목사를 중심으로 싸움이 벌어져 소동을 일으켜 난잡판을 이루었던 광경을 본적이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광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소란한 중에서 "법을 주고 심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가 계속 예배를 봅시다"하고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다. 이처럼 차원이 다른 소란한 험대 음악은 없었으리라.....

나 보고 몰몬교회를 소개하라면 많은 점이 있겠으나 나는 이러한 점을 소개하고 싶다. 몰몬교회는 모든 모임이 사전에 기획되어 있으며 질서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어떠한 모임이든 어떠한 순서이든 치밀한 기획에서 하나 하나 성실하게 실행 처리되고 있으며 무기휘한 성스럽지 못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존엄성과 신앙생활하는데 조금도 차질을 발생시킬만한 점이 없으며 특히 개인의 재질을 마음껏 발표할 기회가 무수히 있다.

적어도 성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으로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할 일이 태산 같다는 것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

며 또 그 마음 가짐이 진실이고 바르며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할 때 혹은 가지고 있는 특권을 행할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며 불의를 볼 때 그 선택의 과단성을 용기를 가지고 행하면 그 머리위에 반드시 총명과 지혜의 축복이 더 많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개입될수 없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우리 교회의 자랑속에서 지난 12월 22일에 공연을 가진 칸타타의 총 지휘를 맡게 된 나는 우리 생활 현실에 맞는 풍조의 작품을 구상하는데 주력했고 오래전에 배워두었던 연출의 기술을 기억하는데 골몰했다. 작곡은 대원이 단시일에 익힐 수 있는 곡을 쓰야했으며 가사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을 시도하기란 무척 어려웠다. 주제곡인 마리아, 요세 및 합창곡을 단시일에 탈고해야 했고 궁녀들의 춤에 필요한 우리 민요의 피아노 반주용 편곡은 확음 배열에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다. 전 요원이 총 연습 일정에 들어서자 아주 열심이 들 연습해 주었다. 특히 헤롯왕역을 훌륭히 해낸 송태섭 형제의 폭이넓은 연기는 아주 좋았고 그 대역인 신하와 무사는 적격이어서 더욱 빛을 낼수 있었다. 목동역의 세 형제들은 연출자의 요청이전에 흡족한 연기를 해주었다. 여기에 조명 효과를 해준 김성규형제는 조명기구를 손수 제작하여 맡은 바를 다 해주어 고맙기 한량없다. 부분 연습 때 가장 무거운 동방박사들의 세형제 가운데 지영달형제가 총연습을 앞두고 급성맹장염으로 수술을 받게되자 나는 담황하지 않을수가 없었

으나 양해운 형제가 대역을 맡아 위기를 모면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것 감사하게 생각한다. 본 칸타타에서 가장 중요한 마리아와 요셉의 중창에서 이 순애 자매는 음량이 작은것이 힘이었고 점수동 형제는 고음에서 약간 뚜렷이되는 쪽 고쳐야 할 위험한 버릇이 있었으나 그어려운 요셉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연구심을 가지고 훌륭히 해낸 것에 박수를 아끼지 않는 바이다. 나그네와 여관집 주인을 해준 주덕영, 김상현 두 형제는 착한 친품 그대로 착실하게 해준것 감사하다. 끝으로 연출을 본 신재구 형제는 총 지휘자의 요구로 뜻대로의 연출을 할 수 없었으나 조금도 불평없이 맡은바를 다 해주었고 무대장치들 실감나게 꾸며준 것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이다. 이외에도 소도구에 이은정 자매와 박노원 형제, 궁녀의 춤 지도에 황능자 자매, 천사의 춤 지도에 신연수 자매, 상세한 기록 요청에 수고한 안은옥 자매,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해야할 벅찬 임무를 피아노로 해낸 민영란자매에게 감사드리며 무대감독을 맡아본 김과영 형제가 최후의 일각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고 뒷처리를 해 준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습기간중 간식을 제공하여준 동부지부 상호부조회 여러자매들과 남남한 목소리를 들려준 신금옥 자매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원하여준 선교부장단 및 지방부장단에게 감사하며 1966년도 칸타타 "거룩한 별"의 성과를반석삼아 더 힘찬 앞날을 기약하며 이번에 수고한 여러 형제자매를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 바이다.

스 탭:                    가        휘        서리   팔머                    총 지 휘        오    간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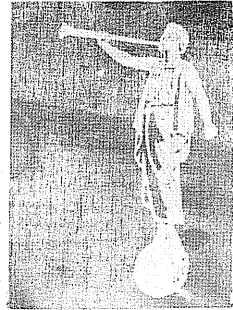
스텝:      각본 연출      신재구      감수위원      정대관  
 무대감독      김과영      함인상  
 무대장치      박노현      송태섭  
 분장      김신지조      지영달  
 조명효과      김성규      주덕영  
 피아노      민영란      김상호  
 기      특      안은옥      김성규

캐스트:      마리아      이순애      궁      녀      김      문      자  
                   요      셉      정수동      김      양      자  
                   나      그      네      주      덕      영      김      익      자  
                   여      권      집      주      인      김      신      혜      연  
                   동      방      박      사      한      인      상      박      영      애  
   최      경      식      안      은      옥  
   양      해      윤      오      현      자  
                   목      동      김      신      지      조      윤      영      희  
   최      희      중      차      미      례  
   박      희      원      홍      정      남  
                   혜      롯      왕      송      태      섭      천      사      구      본      은  
                   무      사      하      김      과      영      김      경      중  
                   신      하      박      중      식      이      규      선  
                   시      너      진      영      희      고      미      라  
   한      혜      상      고      영      순  
   \*특별출연\*      황      능      자



# 이것이 몰몬이다

자랑스런 유형제,  
그는 청운지부 주일학교 회장이다.



주: 유식재 형제의 선행  
이 보도된 지난 12월 2  
일자 동아일보 기사.

## 스케치

9시정각부터 시월이건  
행되는동안 학교형들은모

이날배양중 학교에서인  
부속성방은 학년형들은모  
을넘어 교문형들은모  
려다 경찰의 제지모  
도!

한편 교실안에서 어떤  
수업생들은 모은힘을다해  
격심한경쟁을흥으려고 최  
우까지안간힘을썼는데 특  
히 지난번 체육연습중래  
슬링장난을하다 문물당친  
德壽출신의 申石桓군을우  
모가마련한 들것에 싣혀  
누워서 약착스리 시험을  
끝까지했다.

申군은 부모의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일이  
시험을치러 좋은성적을내  
겠다고벌렸다. 한편 시험  
도중 한시간이끝날때마다  
넋덜학생들은 교문에달려  
가 시험성황을 부모에알  
리기도했다.

# 東亞日報

모다친受驗生누워서試驗

善戰비는父兄들校門밖서벌벌

후릿잡아 올기도  
○: 또한 이화아침 均  
明中에 지은한 韓수형성  
은 孔德동에서 차홍우삼  
고 길바닥에주지않아 올  
음을 티프리카 지나가면  
서울자 8151번은(운전  
사 劉錫錫)이 태위다부  
어 시험을 치렀으며  
시 均明中에지은한 蘇姓  
一군은 버스를타타 1분  
늦게도착 均문앞에 주저  
않아 올을타프리카자  
에있던 均明高1년 韓성  
운군이 들쳐잡고 교실로  
뛰어가 달려오던 학부형  
들의 박수를받기도했다.

합승·택시등 각종영의  
용차량의 정원초과는 프  
리패스시키는등 최대한의  
정의를보였지만 홍수처럼  
쏟아지는 차량때문에해  
통안 교통이 마비되는등  
예년과달리 더욱 혼잡  
을 이루었다.

萬字齋  
相賢彦  
金李奎  
人人人  
行雜刷  
發編印

# 귀환선교사의 아내로 한국에와서

## 하킨스자매

가능한 나의 기억의 세계를 돌이켜 생각하건대, 나는 동양인들과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에 똑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남성을 찾게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일까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나와 똑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만나고 더구나 동양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리라고는 거의 꿈도 꾸어보지 않았읍니다.

내가 하킨스 형제를 만났을 때는 그가 선교사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지 거의 일년이 된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한국인들에 대한 그의 열의와 사랑에 사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는 5년동안 모든 것을 들었으며 "조용한 아침의 나라"와 그 나라의 선량한 백성과 "김치"에 관하여도 들었습니다.

이곳 한국에 있게 되므로서 나는 하킨스 형제가 왜 그렇게 다시 한번 한국에 오기를 열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의 생활과, 다정한 사람들과, 김치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 생활을 직접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행복합니다. 아시아인의 문화에 관하여 더욱 배울 수 있는 이 기회와 무엇보다도 복음에 충실한 한국 성도들을 알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필자는 한국에서 선교사업을 끝내고 현재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체한중인 하킨스형제의 부인)

(92) 1005 전화연락.

# 원아모집요강

서기 1967년도

본 유치원은 다음 요령에 의거 원아를 모집한다.

1. 모집인원 40명
2. 지원자격 1967년 3월 1일 현재 만 4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생년월일 1961년 3월 2일 부터 1962년 3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
3. 지원절차.
  - 가) 원서교부 2월 1일(수)부터 2월 20일(금)까지.
  - 나) 원서교부장소 동부리부
  - 다) 원서접수시 아동면접. 2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 라) 면접기일 2월 20일 오전 10시 부터
  - 마) 전형방법 아동면접 및 신체검정사.
4. 결과발표. 2월 23일 오전 10시  
(본 유치원 게시판에 발표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주동 134의 19호.





# 병오년의 결혼 휘나레

김동길 장례사.

병오년도 다 저무는 12월 17일, 청운지부에서 우리의 형제 김동길 군과 우리의 자매 장혜자 양의 결혼식에 전 한국성도의 시선과 정성이 한데 모인것도 우리 교회에서 만이 가지는 결혼의 신성성과 중대성 때문이리라.

물론에서 간뼈가 굵은 이 한쌍의 원앙, 아니 원앙이 되기 이전에 그들이 교회안에서 주고 받은 부끄러운 시선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격려, 친지들의 도움,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이 오늘을 있게 한 것이다.

팔머 선교부장님의 주례, 차종환 지방부장님의 사회, 청첩인이었던 정대관 평의원님의 개선행진곡(?) 반주로 시작된 금년 결혼식의 휘나레를 장식한 이날 결혼식은 너무 많은 형제 자매들의 참석으로 식장에 들어가지 못한 분의 의상 스텀 푸념(?)과 함께 그들의 앞날을 주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하였다.

몇달전에 결혼하신 지방부장 제일보좌이신 한인상형제님의 선배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시느라 동분 서주 하신 것과 친낙서 장로님의 숨은 노고, 삼척지부의 전폭적인 도움은 이날을 더욱 풍성하게 했고 이화 여자 대학을 다니시던 신부님의 미모는 형제들의 감탄의 대상이었다.

이 두분의 앞날에 풍성한 주님의 축복을 빈다.

(결혼 사진은 확보란에)

# 게시판

이후 남 兄弟 정미 첫  
 날에 딸  
 多情한 아버지 이후 남  
 兄弟는 금년 정월 초  
 하루 0시 24분, 약수 등 소  
 재 약수병원으로 날려간 박사대님  
 이 딸을 순산함으로서 양씨 딸을  
 얻어 이제는 일남 일녀의 아버지.

"필본" 仁川에 上陸.

1966년에 성북, 신촌, 광주 등의 지역을 개척한 한국 선교부는 1967년 벽두, 인천에 새로운 지역을 열고자 이정현, 스웬서, 싸틀, 슈밀 제 장로를 상륙시켰다. 함도 인천은 한국 제 1의 관문이요, 이 도시에 얽힌 역사의 배경이 자못 험란하다. 우리는 새로운 임무를 갖고 인천으로 떠난 선교사들의 건후를 빌며 이곳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근거가 될 인천지역이 하루 빨리 크게 발전하기를 한 마음으로 빈다. 아울러 한국의 전 성도는 인천에 거주하거나 혹은 인천 및 그 근역에서 임시 거주하는 친지, 가족 모두를 인천 지역에 안내해야 겠다.

독자 여러분! 선교부 계획에 호응하여 인천지역 발전에 협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韓國地方大會

1967년도 제 1차 한국 지방대회가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열리게 된다.

## 서울 지역

일자 1967년 2월 18, 19일. 양일간

장소 한국 선교본부 강당

신권회대회 2월 18일 오후 6시 (선교부 강당)

제일총회 2월 19일 오전 10시 (선교부 강당)

제이총회 2월 19일 오후 2시 (선교부 강당)

## 남부 지역

일자 1967년 2월 25, 26일 양일간

장소 부산 동구지부 예배당

신권회대회 2월 25일 오후 6시 (부산동구지부)

제일총회 2월 26일 오전 9시 30분 (부산동구지부)

제이총회 2월 26일 오후 12시 30분 (부산동구지부)

성도들의 영적인 발전을 위하여 열리게 되는 이 모임에 많은 친지와 가족을 도시고 나오시어 복 받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한국 지방부

# 새해 새사람이

車鍾煥

전국에 흩어진 형제 자매님들께 정미년 새날을 맞이하여 삼가 세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나이 어린 학생이나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학년이 올라가고 지식이 늘어나며 성공할날이 가까워지며 또한 희망하고 소망하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어 기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장년 아니 노년기에 접한 사람들은 그다지 기쁨을 느끼지 못한 이들이 많다. 이까닭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늘어가는 것보다 줄어드는 것이 더 많고 줄지는 안더라도 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해가 갈수록 늦어지고 멀어지고 희미해지고 잊어지고 밝아지고 쇠해지고 줄어드는 느낌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기쁘기 보다는 안타까울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과 소망을 잃고 새토워지고 명백해지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해를 다시 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고 그에 대한 신앙감증을 새롭게 합시다.

오늘 우리 주위 사람이 예수를 누구라 생각했던 한국 사람 전체가 무엇이라고 평을 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

다. 즉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도 슬프거니와 민족과 세대를 위해서 슬픈일입니다. 왜냐하면 민족과 세대를 구속할 메시야를 바로 증거해 줄 이는 그리스도인 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고백을 바로 못하면 안되겠기 때문이다.

예수의 제자중 예수가 누구라고 잘 대답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간증이 되어야 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야로 자기의 구주로 확실히 고백하지 못하는 교인은 "교회인"은 될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오늘 많은 교회인들은 예수를 위대한 교사로 열렬한 애국자로 특수한 종교가로는 인정하나 자기의 구주로 믿고 간증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에게서 도덕적인 교훈은 들어도 그가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와 기쁨은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이해와 간증은 사람의 지혜와 이성 의 힘으로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령의 감화로써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령의 감화는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여는 자에게 임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왕국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혼탁한 세대 속에서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캄캄한 절망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힘을 그 마음의 왕국에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회헌에게 부가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올바른 이해와 참된 신앙 간증을 자신속에 다짐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 이심을 이해했으면 에베소 4장 22-24절 말씀과 같이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인간들은 권세욕, 명예욕, 금전욕, 물질욕, 등의 욕심을 찾으면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줄로 알고 애쓰나 사실인즉 이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에 얻는 것은 다만 저주와 비애가 오는 것 뿐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는 예수를 모를 때에 살든 불결의 행동이며 방탕의 생활양식이나 이런 더럽고 무서운 구습을 완전히 버리라는 권면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요 화학적인 변화를 가르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받

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속에서는  
해를 받으면 밖에서 새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계획이 있을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의 계획은 모다 들쑤이며 무  
엇보다도 먼저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격이 없는 동  
행하는 생활입니다. 인간 계획과 그토 입하는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정병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토 굳인이 적을 무찌르듯 우리 성도들은 악한것 부패한 것  
을 없애겠다는 각오와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바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에 사무치고 우리 입에 있어야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고 언  
행이 일치되는 아는 것을 행함 줄 아는 물몬의 특성을 나타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써 단련이  
필요하듯 우리는 아침 저녁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며 심  
일조를 내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주님 제명 가운데 사  
는 일에 부지런해야 될 줄 압니다.

새해 모든 소망이 성취되기를 빌며 .....

1967년 1월 1일  
(한국 지방부장)

1966년 11월 칩레자 명단

대구지부 — 박 은영, 김 정환, 김 룬자, 채 연순, 이 기영,  
한 종태, 이 덕환.

신촌지역 — 안 치훈, 정 순덕.

성북지역 — 조 정숙, 김 미희.

삼척지부 — 정 은순, 이 강중.

서부지부 — 김 영만, 아 선우, 김 군옥, 김 소저.

1966년 12월 칩레자 명단

청운지부 — 차 정대.

삼척지부 — 최 옥현.

광주지역 — 이 재수, 이 강국, 이 부숙, 황 선숙, 양 현철,  
양 응철, 이 규종, 정 현기, 양 희일, 이 영지.

부산동구 — 도 기찬.

동부지부 — 한 원석.

성북지역 — 여 은효, 최 은지.

## 編輯後記

정미년을 마지하여 성도의 벗의 새로운 편집진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세배드립니다.

이해에는 보다 더 참신한 아이디어로서 성도들의 기대에 보답코저 하오니 성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편달을 바랍니다.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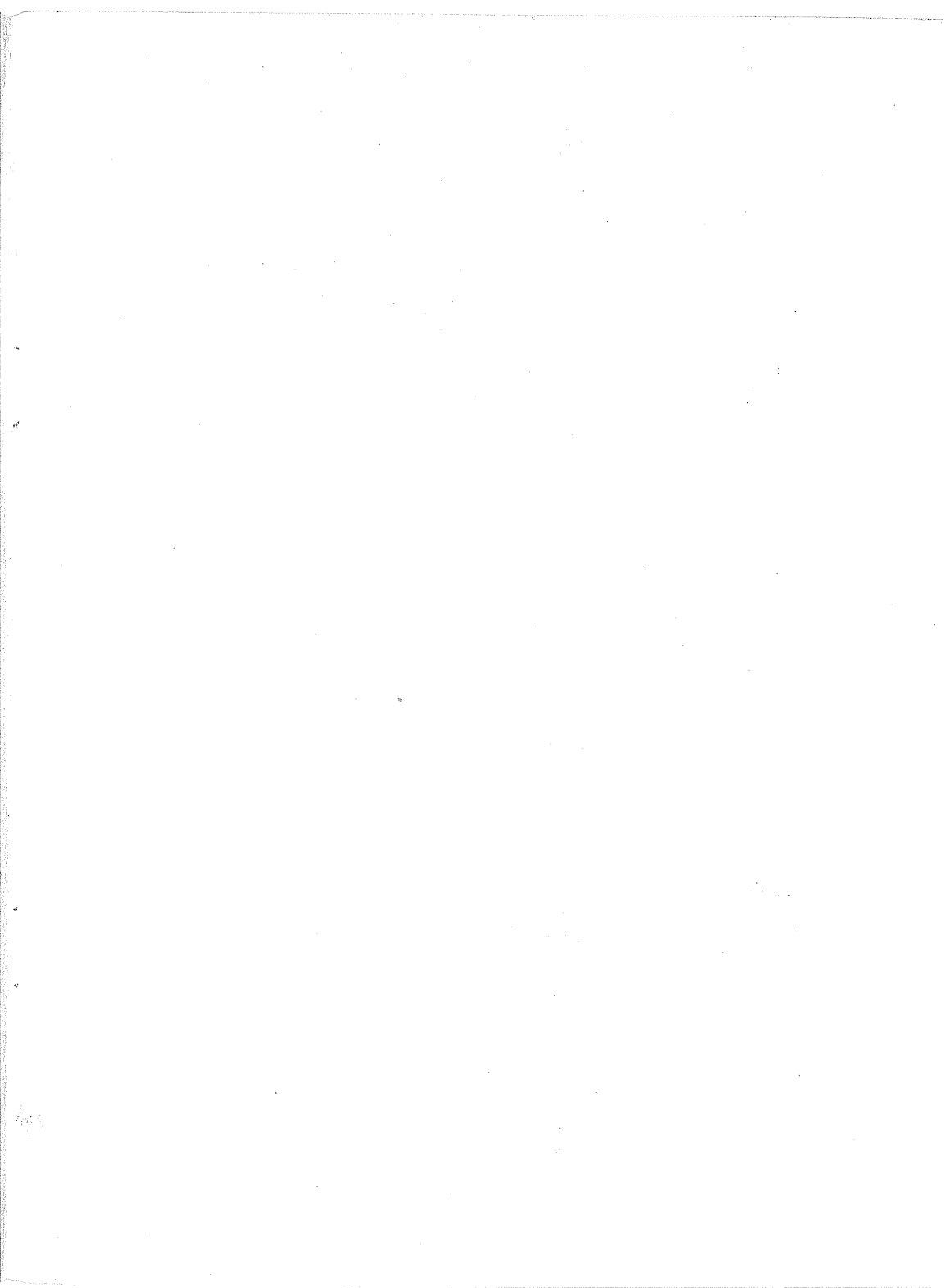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일하는 해, 더 일하는 해, 혹은 돌격의 해, 등등 많은 이름을 붙이고 일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선 그런 이름을 붙일 때 만은 단단한 각오를 하는가 보다. 눈에 안보이는 술한 전쟁을 치르고 성도의 벗을 내 보내게 될 때, 성도 모두의 참된 벗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지만 ... 편집진이 강화되었대서 질서를 바로 잡고, 더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마음 먹어 봤다. (인)

고독, 원고를 먹고 산다는 자의 이름.

분망, 가깝한 살림을 뒷바라지 하는 일손.

환상, 일손을 댄후의 기대.

글세, 터무니 없이 보람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흘린 땀은 그대로 페이지마다 아롱져서 "성도의 벗"을 읽는 성도들의 구미에 새로운 맛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벗으로 세상에 첫선을 보이는 이 신년호가 여러분의 반가운 벗이 되기를 .... (갈)





**성도의 벗**

發行人 스펜서 제이·팔마

發行人補 車 鍾 煥

編輯人 韓 仁 相

發行所 서울特別市鍾路區清雲洞7

印刷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本部